

## 보건교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Health education in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국제보건교육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金 命 鎬

(한국보건교육학회장)

### 머 리 말

1962년 6월 두번째 미국유학(UCLA, School of Public Health)을 마치고 귀도에 올랐을 때 고국의 보사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 5차 국제보건교육회의에는 한국대표로 파견하려던 全炳勳博士(현 본회 부회장)가 못가게 되었으니 필자보고 참석하고 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UCLA 보건대학원의 보건교육과 주임교수 Dr. Edward Johns 즉 은사와 함께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 처음으로 이 회(International Union for Health Education=IUHE)와 인연을 맺었다. 그 후 10여년 후 1976년 제 9차회의, 1979년 제10차회의, 1982년 제11차회의, 1985년 제12차회의에 참석하여 3년마다 열리는 이회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보건교육분야의 발전상을 친히 보았기에 종합적인 것은 안되더라도 부분적이거나 여기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 1. 보건교육의 어제

미국의 보건대학원에서 보건교육과목이 독립된 과목으로 강의가 실시된 것은 아마 1940년대 초반이라고 한다. 1948년 미네소타대학 보건대학원의 보건교육과목 담당교수였던 그라우(Ruth E. Grout)박사는 처음으로 보건교육의 교과서를 저술하였다(Health Teaching in Schools). 이책의 서문에 보면 그라우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책의 저술의 목적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사에게 어린이(학생), 가정 및 지역사회 건강요구에 관한 최근 정보를 주도록 하고 이와같은 요구를 통하

여 건강교육의 올바른 방향모색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둘째는 현대교육의 절차와 원칙에 역점을 두고 이와같은 것을 건강교육에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교사가 건강교육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건설한 자료를 주고져 하는데 있다.

1954년 9월 미네소타대학 보건대학원에서 필자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보건교육을 전공과목으로 보건학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입학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3~4년간 보건사업에 종사하였지만 학문적으로 보건교육의 공부는 이때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학교보건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학교보건과 보건교육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지도교수의 권면에 따랐다. 교육원리를 비롯하여 교육학에 관한 기초지식 없이 보건교육을 전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고 의사가 이런 학문을 해야 할 것인가 의문도 있었지만 보건행정수단에는 법의 집행(regulation), 보건봉사(service) 및 보건교육(education)이 있으나 그 중 제 1 효율적인 것은 보건교육이라는 은사인 보건대학원장 앤더슨(Gaylord W. Anderson)교수의 강의의 영향을 받아 이 공부를 하게 되었다.

1962년 제 5차 국제보건교육회의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全炳勳, 威洛源, 閔昶東博士가 비울빈대학 보건대학원에서, 朴亨鍾, 李汝玉, 田元培, 李潤鎭教授가 미국의 각대학에서 보건교육을 전공하기에 이르렀다. 또 1960년전후 미국 국제개발처(USOM-K)에서는 하트맨(Hartman)씨와 李汝玉선생이 주동이 되어 보사부를 지원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보건교육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내에 있어서의 발전 또는 진진은 제 5차 국제회의내용이 다시 자극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제 5차학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축사가 케네디대통령으로부터 IUHE의 회장인 카나페리아교수(Prof. Canaperia)에게 전달이 되었고, 1962. 7. 4 미국독립기념식전에 우리 회원 전원이 초청되기도 했다.

"In the 20th century health is no longer the parochial concern of any one nation, for disease knows no national boundaries. Improved standards of health can only be based upon the informal action of individuals. Deligates of this conference represent groups from every continent who are endeavoring to spread life-saving knowledge to the peoples of the world.

If present knowledge were universally available, hundreds of thousands of lives could be saved every year and untold suffering could be avoided. This huge gap which exists between available scientific knowledge and its application for the benefit of man must be closed. I congratulate the conference on gioing first priority to this task."

즉 20세기의 오늘 건강이란 어느 지역의 한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마치 질병에는 국경이 없다는거나 다름이 없다. 건강의 개선은 각개인이 건강에 관해서 아는데로 실천하는데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을 세계 모든 곳에서 이해하게 되면 수 많은 생명의 손실을 구제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체득과 그 적용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없애는데 우리들의 큰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인간과 그 환경(Man in his environment)이라는 주제로 인간의 생물학적, 물적 및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서 토의되었다. 즉 보건교육이 인간의 환경의 관리와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 보건교육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의 의의, 그리고 보건교육분야에서 요구되는 각종 요원의 준비 등을 중심으로 전체회의와 본과토의가 이루어졌다.

IUHE는 원래 1951년 파리에서 발족된 국제회의로써 비정부기관이다. WHO, UNESCO, UNICEF 기타 보건관계의 많은 비정부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보건교육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과학적인 연구의 증진을 위해서 범 세계적인 정보와 경험을 교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1차 국제회의는 1951년 파리에서 창립총회와 학술대회를 열었고 그후 제 2차는 1954년 로마에서, 제 3차는 1957년 다시 파리에서, 제 4차는 1960년 독

일의 뉘셀돌프(Düsseldorf)에서 그리고 제 5차를 필라델피아에서 열었다.

그 후 제 6차: 마드리드(1965), 제 7차: 브에노스 아이레스(1968), 제 8차: 벨사이유(1973), 제 9차: 오타와(1976)에서 열렸다.

1973년의 제 8차 회의에서는 "지난 20년간에 있어서의 보건교육의 평가와 미래에 있어서의 전망(20 years of health education: Evaluation and forecast for the years ahead)"라는 주제로 지난날의 보건교육분야의 발전이 평가되고 금후 상당한 기간의 보건교육의 전망을 한 것이다.

1962년 제 5차회의로부터 1973년 제 8차회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각대학 20여개의 보건대학원에는 대부분 보건교육과가 설치될뿐 아니라 커다란 발전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WHO나 USOM(또는 USAID), IPPF와 같은 국제적 또는 어느 2개국간(bilateral)에 이루어지는 보건관계기관 또는 활동에서도 보건교육과제는 보건분야 전체중에서도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국내적으로는 60년대에 와서 洪甲杓, 金善英, 任在恩, 李時伯교수 등이 미국에서 보건교육의 공부를 하여오고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채택되고 WHO 사업 시범도로 忠南道가 선정되어 이 사업이 5년간 계속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정부에서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인정되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1967년을 전후하여 외국에서 보건교육을 전공한 필자의 제씨와 WHO의 고문관(Elizabeth Mumm), 보사부 보건교육관장과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나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에서 보건학석사, 과정에서 보건교육을 전공한 인사들과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 건강교육과 졸업생이 규합하여 오늘날의 보건교육학회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보건교육협회를 조직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협회는 수차례의 준비위원들이 전문위원 월례회를 거쳐서 준비되었다. 참고로 그때의 회의록을 게재코져 한다.

### 제 1차 보건교육 전문위원 월례회 회의록

일 시 : 1971년 3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8시  
장 소 : 삼각산식당

참석자 : 김명호, 이성우, 이여옥, 임재은, 전원배, 전병훈, 홍문식, 이시백, 함락원, 김선영

회의내용 :

1. 1971년 3월 14일 보사부 보건과에서 모인 결과 회

장에 합락원, 서기에 김선영으로 개선한데 대하여, 그때 참석지 못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만장일치로 동의의를 얻었다.

2. 이어욱 선생으로부터 1968년부터 현재까지의 회계보고를 하고 기록과 회재정(8,172원)을 김선영 서기에게 인계하였다.

3. 매월 정기모임(제3 금요일)에 회비 1,500원으로 하여 500원을 회식비로 하고 1,000원을 제금으로 하여 제비를 뽑아서 순번으로 갖기로 하는데 동의했다.

4. 보건교육협회(가칭) 창설에 대하여는 보건교육전문위원회 전원이 준비위원으로 되고 다음의 세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 (1) 정관 초안위원회—\*전원배, 홍문식
- (2) 재정위원회—\*김명호, 전병훈, 민창동, 합락원
- (3) 홍보위원회—\*홍갑표, 이시백, 임재은, 이어욱, 김선영

\*는 위원회 책임자로 정한다.

각분과위원회 보고는 다음 월례회에서 한다.

5. 다음 월례모임은 4월 23일 금요일에 한다.

회 장    합    락    원  
서 기    김    선    영

### 제 2 차 보건교육 전문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71년 4월 23일 금요일 6시 30분~8시 30분

장 소 : 삼각산식당

참석자 : 홍갑표, 김명호, 전원배, 홍문식, 이시백, 합락원, 전병훈, 김선영

내 용 :

- 1. 제 1 차 회의록을 통과시켰다.
- 2. 한국 보건 교육협회(가칭)준비 위원회 보고 :

1) 정관 분과 위원회  
위원장 전원배씨로부터 정관(안) 낭독이 있었고, 그 중요한 내용 설명이 있었다.

토의 및 합의 사항 :

- (1) 명칭은 한국 보건교육 협회로 한다.
- (2) 정관(안)을 유인물로 하여 준비위원에게 배부하여 5월 7일 회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통과시킨다.
- (3) 5월말까지 보사부 장관의 결재를 맞는다.
- (4) 창립총회를 위한 발기인 명단을 5월 회의때까지 준비 한다.

2) 재정분과 위원회 :

(1) 창립총회에 필요한 예산은 재정분과 위원(김명호, 전원배, 합락원, 전병훈)에게 일임 한다.

(2) 기금 모금을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생명보험회사, 산업보전기관, 기타 기관의 협조를 얻는다.

3) 홍보 위원회 :

창립총회를 위한 홍보활동의 계획은 5월 회의에서 토의 한다.

3. 기금 총액은 9,000원으로 한다.

전병훈 : 2,000원 이시백 : 1,000원 합락원 : 1,500원

김명호 : 1,000원 이성우 : 2,000원 민창동 : 1,500원

4. 국내에 계시면서 참석못하신분은 4월부터 벌금 500원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협회 기금마련을 위한 것이오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 모임은 5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삼각산에서 합니다.

기록 김 선 영

### 제 3 차 보건교육 전문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71년 5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8시 30분

장 소 : 삼각산식당

참석자 : 이어욱, 홍문식, 전병훈, 합락원, 임재은, 김선영

내 용 :

1. 제 2 차 회의록 수정 :

재정분과 위원 명단에 민창동선생이 사무적인 착오로 누락되어 첨가한다.

2. 정관(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3. 정관(안)에 대하여 토의된 사항을 초안자이며 정관 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원배 선생께 참고 하게 하며, 정관 위원들은 다음 회의인 5월 21일까지 정리하여, 최종 토의후 통과시키도록 준비한다.

4. 다음 회의는 5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삼각산에서 갖는다.

기록 김 선 영

협회 정관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결국 협회를 조직못한채 세월이 흐르고 말았다.

제 9 차 국제회의가 오타와(Ottawa)에서 열렸을 때는 박형중박사와 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필자는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인구교육"이란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학교보건분과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 이회의의 주제는 "보건교육의 기본요소로서의 보건정책, 사회적 지표 그리고 개발의 활력"(Health policy, social goals, and the dynamics of development as bases)이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1,000

여명의 참석자로서 캐나다보건교육협회의 성의있는 준비의 흔적이 눈에 띄었다. 결국 이회의에서는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건정책의 수립단계서부터 보건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주창과 강조가 뚜렷이 보였다. 즉 Nottingham대학의 교수인 Dr. Backett는 제 1의제 강연에서 특별히 보건교육, 보건정책 및 사회적과 경제적 개발의 절차간에 있어서의 중요한 관련에 초점을 두었다. PAHO/WHO의 책임자인 Dr. Acuna는 제 2의제 강연에서 “보건의료와 보건교육의 연합의 경향”이란 내용이 검토되었고 제 3의제에서는 UNEP의 Dr. Mollenhauer이 환경적인 위협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있어서의 보건교육이 주는 자극”이란 제목의 연설은 청중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제 4의제에서는 미쉬간대학의 Dr. Simonds는 “Emerging Challenges in Health Education”이란 제목으로 보건교육분야의 분발을 주창하였다.

제10차 국제회의는 런던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한국으로부터 金貞泰, 田山草, 李徵範博士와 필자가 참석하고 미국으로부터 尹星熙博士가 참석하였다. 회의의 주제는 보건교육활동: 성취와 우선순위(Health education in action; achievements and priorities)이었고 Waterloo Bridge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Royal Festival Hall이란 그야말로 웅장한 건물에서 개최되었다.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 명강의는 Johns Hopkins 대학의 Prof Green의 보건교육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린교수 자신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흑백스라이드는 감탄할 정도로 잘 만든 것이었다.

회의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Group themes:

(1) Public policy-progress in the integration of health education in national planning.

(2) Youth-health education in youth including preparation for parenthood, the pre-school child, primary education and the adolescent.

(3) Methodology-for specific topics

70년대의 보건교육은 1978년 Alma Ata에서의 WHO의 1차 보건진료에 대한 선언이 있을 후 이를 중심으로 한 보건교육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즉 1차 진료의 개발을 가지고 오기 위한 전략의 입장에서 보건교육의 가치와 역할이 크게 인식되었다. 특히 2000년까지의 모든 사람의 건강(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에 초점을 둔 보건교육의 계획 및 추진이 뚜렷하게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에 와서 南喆鉉博士를 위해서 몇몇 보건학박사 또는 석사로서의 보건교육전문가

가 활약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의료보험이 실시된 후는 보건교육이 국민의료의 발전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 2. 보건교육의 오늘

1982년 호주의 타스마니아주 호바트(Hobart)에서 제11차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때는 “Towards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role and priorities for health education”이란 주제로 세계 모든 사람이 서기 2000년까지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과연 보건교육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3단계 즉 국가적, 지역사회 또는 산업분야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져 보는 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南喆鉉博士와 필자 두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필자는 한국의 학교보건사업을 발표 및 소개하였다. 일본으로부터는 30여명이 대거 참석하고 종전까지 英, 佛, 西 3개국어만 공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때는 日語도 공용어로 사용되고 동시통역이 실시되었다. 8월에 이 회의로부터 돌아와서 60년대부터 숙망이었던 보건교육협회 또는 학회조직을 준비하였다. 시작이 반이란 옛 격언대로 12월에 가서 발기인회를 갖고 대한보건협회 산하에 학회로서 한국 보건교육학회가 출범되었다. 필자가 회장으로 全炳勳博士와 李時伯博士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종래 협회 또는 학회를 조직하고자 뜻을 모았던 인사들로 이 사진을 구성하였다. 우리 학회는 1985년 9월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제12차 국제회의에 대거 참석하는데 목표를 두기로 하였다.

국내 사정이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이어 제 5차 계획(1982~1986)에서는 경제개발에 못지 않게 사회개발에도 국가정책 및 사업에서 치중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86아시아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때문에 식품위생을 위시하여 제반보건사업의 원만한 수행에 있어서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가일층 중요시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제12차 국제회의에서는 예정대로 더브린(Dublin)에서 54개국으로부터 1,0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의제는 “Health for all-meeting the challenge”이었고 이주제를 과학적, 기술적, 제목별, 전문적(직종별), 사회적 그리고 건강증진면에서 다루고 쟁점(issue), 난점(constraints), 발전(progress), 특별한 인구, 특수지역에 걸친 토론과 연구발표가 있었다. 80여편의 귀중한 논문발표는 5개소의 대강당에서 나누어서 있었기에 듣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모두 들을 수

없었다. 이 국제보건교육회의는 회의를 마친 후 회의록(proceedings)을 발간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고 단지 몇개의 논문만 IUHE의 기관지인 Hygie(季刊)에 게재될뿐이다.

제12차 국제회의에도 일본으로부터 30여명, 대만으로부터 10여명이 참석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필자가 가족과 참석했을 뿐이다. 보건 교육학회도 조직은 되었지만 대학에서 일하는 인사들에게는 후기 학기초가 되고 회의참석비용은 모든 것이 자비이고 보면 참석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국제회의가 개최되기 전 2개월 앞서서 이번에는 이사 12명중 6명이 임기가 끝나니 입후보해 달라는 요청이 일본에 있는 친구(金永安弘 博士)로부터 와서 승락하고 심의를 거친 결과 회본부로부터 입후보를 인정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행히도 9월 5일 총회석상에서 참석회원 503명중 투표회원 463명 중에서 387명이 지지해 주어 필자가 우리 학회회장으로서 국제학회의 이사가 되었다.

금후 6년간 세계적인 보건교육프로그램에 봉사하고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보건교육 활동상황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개인적으로나 학회적으로 띄 경하할 일로 생각한다.

### 3. 보건교육의 내일

제13차 국제회의는 1988년 8월 28일~9월 2일까지 미국의 휴스턴(Houston)에서 갖기로 제12차 회의에서의 의결되었다. 의제는 "Participation for all in health"로 결정되었다. 보건교육분야에서도 금후 당분간 Health for All에 초점을 두고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전자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시청각기재에 있어서도 가속적인 발전을 가지고 와서 보건교육의 방법은 크게 달라질 것이 예견된다. 그뿐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도 크게 이루어져서 보건교육은 더욱 그 역할이 클 것이 예견된다.

보건교육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건교육방향, 2000년대를 내다 보는 국민보건교육의 전략개발 등의 세미나

가 보사부주최로 수차에 걸쳐서 열린바 있으나 앞으로 더욱 이와같은 집회가 빈번하게 개최될 것이 요망된다.

국내 3개 보건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강화와 전문가 양성에도 노력이 있어야 하고 보건요원에 대한 국립보건원에서의 보건교육에 관한 훈련도 형식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 안다. 또 현재는 연약한 보건교육학회가 튼튼한 학회로 발전되고 보건교육협회도 조직되어 국가기관에서 할 수 없는 보건교육사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회가 금후 6년간 이사학회로서 국제학회에서도 크게 인정받는 학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는 20세기에서 세계 전체인구의 건강을 위해서 크게 한몫을 할 때가 올 것을 믿는다.

### 參 考 文 獻

- Grout, R.E. : *Health Teaching in Schools*, 2nd ed W.B. Saunders Co. 1948.
- Smillie, W.G. :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2rd ed. McMillan Co. 1951.
- Kennedy, J.F. :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Education*, Vol. 1, 1962.
- O.Connor, B. : *Man in his biological environment*, *Int. Jr. of H.Ed.* Vol. 2, 1962.
- Erchov, V.S. : *Man in his physical environment*, *Int. Jr. of H. Ed.* Vol. 3, 1962.
- Aujoulat, L.P. : *Man in his social environment*, *Int. Jr. of. H.Ed.* Vol. 4, 1962.
- Baric, L. : *Studies and research in health education*, *Int. Jr. of H.Ed.* Vol. 5, 1962.
- 김명호 : *보건교육*, 수문사, 1985.